

【번역논문】

## manju “滿洲” 명칭 어원 분석

長 山\*

宋 康 鎬\*\*

### 차례

서론

1. manju의 구성 성분 분석

(1) -ju의 來源

(2) man-의 來源

2. manju의 語義 來源

3. 종족명칭과 경제생활

(1) 蒙古

(2) 鄂倫春

(3) 達斡爾

### 서론

皇太極(淸太宗, 1592-1643)이 族名을 “滿洲”로 개명하기 전에는 누르하치와 皇太極은 자칭 jušen “諸申”이라고 했는데, 天總 9년(1635)에 皇太極이 자신의 族名을 manju “滿洲”로 고쳤다. 『舊滿洲檔』의 기록에, “칸이 말하기

\* 中國 黑龍江大學 滿族語言文化研究中心 教授

\*\* 滿文史料研究 研究員

를, 우리나라는 滿洲, 哈達, 烏拉, 葉赫, 輝發 등의 명칭이 있는데, 무지한 이들이 종종 諸申이라고 부른다. 대저 諸申이라는 호칭은 席北超墨爾根의 후예이다. 지금 이후로 모두 우리나라의 滿洲라는 원래 이름을 부르도록 하고, 諸申으로 부르는 자가 있으면 罪로 다스리겠다”라고 하였다.

皇太極의 族稱 改名 上諭에는 왜 명칭을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사유가 나오지 않고, 또 manju “滿洲”라는 호칭의 숨意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백 년 이래로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이 上諭의 내용으로 보면 jušen “諸申”과 manju “滿洲”는 같은 민족공동체에 대한 다른 호칭이다. 본 논문은 앞서의 연구 성과에 기반해서,<sup>1)</sup> jušen “諸申”과 manju “滿洲”의 어원을 비교하여 manju “滿洲”라는 종족명칭의 내원을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 1. manju의 구성 성분 분석

manju라는 단어의 어원을 해석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자들은 장시간 노력을 쏟아 부었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치된 시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학자들은 manju라는 단어가 man + ju로 구성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man-과 ju-의 어원을 해석할 때는 각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 (1) -ju의 來源

皇太極이 종족명칭을 manju “滿洲”로 고치기 이전에 그들은 자칭 jušen “諸申”이라고 하였다. 구성 단어로 보면 jušen은 ju- + še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어의 어근 ju-와 manju의 제2 구성성분인 -ju는 완전히 같은 것이

\* 中國 黑龍江大學 滿族語言文化研究中心

\*\* 滿文史料研究

1) 黑龍江大學 哈斯巴特爾 선생은 滿洲族의 先代 名稱 語源에 대해 일련의 논문을 작성하였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哈 선생의 지도를 받았다.

며 아울러 내원도 같은 것이다.

분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jušen “諸申”과 몽고인들이 “諸申”에 대해서 불렀던 juřčin이라는 호칭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몽고인은 jušen “諸申”을 juřčin이라고 불렀다. 구성 성분으로 보면 juřčin은 jür- + -či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jür-는 비독립적인 어근이며, -čin은 구성 성분으로 명사 뒤에 첨가되어 명사를 파생시킨다. 연구에 의하면 만주어 jušen과 몽고어 juřčin 간에는 어음 대응 관계가 있으며 어원이 같은 단어이다.

먼저 몽고어 자음 ʧ와 만주어 자음 ʃ간의 어음 대응 관계가 존재하며, 몽고어 성분 -čin과 만주어 성분 -šen은 같은 어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1>

만주어	몽고어	어의
ʃanggiyan	ʧayan	白 (흰색, 희다)
ʃejilembi	ʧegējemtūi	背(書) (책)외우다
ʃeše-	ʧiči-	刺 (찌르다)
nišala-	ničala-	砸碎 (깨뜨리다)

몽고어 구성 성분 -čin은 명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이들 부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를 파생시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몽고어

tariya “田地” - tariyačin “農民”

mal “牲畜” - malčin “牧人”

äjil “工作” - äjilčin “工人”

dayuu “歌曲” - dayuučin “歌唱家”

만주어 구성 성분 -šen은 대개의 상황에서 -si(讀音 ʃi) 형식으로 나타난다. 기능은 몽고어 구성 성분 -čin과 완전히 같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만주어

usin “田” - usisi “農夫”

namun “庫” - namusi “庫丁”

그 다음으로 만주어와 몽고어 비독립 어근 ju-, jür-간에도 어음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만주어와 몽고어에서 동일한 어원을 갖는 단어에서, 몽고어 음절 어말자음이 r인 단어는 만주어에서는 종종 탈락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표 2>

만주어	몽고어	뜻
hūdun	qordon	快 (빠르다)
dafakū	dabqur	雙 (쌍)
dogo	soqor	瞎子 (시각장애인)
ogo	ugur	臼, 錐 (절구, 송곳)

그래서 몽고어 속에서 중세기 몽고어 문헌 가운데 jürči(人名), jürčidai(人名), jürgen(部落名) 등 인명과 부락명칭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외에 비독립

어근 *ǰür-*은 현대 몽고어에서는 이미 완전히 소실되었다. 만주어 속의 비독립 어근인 *ju-* 역시 *jušen*(族稱), *jušeri*(人名), *manju*(族稱) 등 소수의 인명과 부락명칭에만 나타난다. 만주어 *ju-/ju*와 몽고어 *ǰür*의 어원에 대해, 필자는 그것이 만주족의 姓氏를 나타내는 *gioro* “覺羅”와 같은 어원 관계라고 보는데, 그것은 원시알타이어 \**goro* “箭”에서 변화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만주어의 *gorokin*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蠻夷”이다. 哈斯巴特爾 선생의 연구에 의하면 *gorokin*은 *goro*-에 *-kin*을 더하여 구성한 것으로 그 가운데 어근 *goro*-와 몽고어 *qor* “箭”은 같은 어원 관계이며 의미는 “箭”이다. 구성 성분 *-kin*은 만주어에서 명사를 파생시키는 성분으로 “具有...”의 뜻이 있다. 만주족의 성씨 *gioro* “覺羅”라는 단어는 *goro* “箭”에서 변화하여 나온 것으로 모음 *i*는 *goro* 중의 자음 *g*가 구개음화되어 변한 결과이다.

함씨의 연구에 근거하여 우리는 *goro* “箭”, *gioro* “覺羅”와 *ju-/ju*, *ǰür*간의 내월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알타이어에서는 자음 *g*가 구개음화되어 *j*가 되는 역사 변천을 겪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여전히 정도를 달리하여 만주어 내부와 만주어·몽고어 동일어원 단어 속에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둘째, 위에서 분석한 것에 근거하면 만주어와 몽고어 동일어원 단어 가운데 몽고어 어말자음 *r*이 만주어 속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있다. 원시알타이어 \**goro*는 몽고어에서 어말 모음이 탈락하여 *ǰür*로 변하고, 만주어에서 어말 모음과 자음이 연속 탈락하여 *ju-/ju*이 되었다. 결국 만주어 *ju-/ju*는 원시알타이어 \**goro*의 어두가 구개음화되는 동시에 어말음은 연속 탈락한 결과이다.

&lt;표 3&gt;

만주어 jaka-rambi “裂縫”	만주어 gaka-rambi “裂開”
만주어 jab-kū “箭桶”	만주어 gab-tambi “射”
만주어 jerin “器物邊”	만주어 girin “邊, 沿”
만주어 gida “矛”	몽고어 ṡida “矛”
만주어 giyala- “離開”	몽고어 ṡaila- “離開”
만주어 giyolo <sup>2)</sup> “腦門”	몽고어 ṡulai “腦門”
만주어 giyamun “驛站”	몽고어 ṡam “驛站”(중세 몽고어)

이상 연구로 증명된 바, 종족명칭인 jušen “諸申”과 manju “滿洲”속의 공통 성분인 ju-/ju는 원시알타이어 \*goro에서 변화하여 온 것으로, 구체적인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ju < ṡür < \*joro < \*jioro < gioro < \*goro

## (2) man-의 來源

manju-라는 단어의 첫 번째 구성 성분인 man-의 어원에 대해서 전문학자들도 많은 해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필자는 이탈리아 학자 Giovanni Stary가 제기한 man-의 mangga “硬, 強” 유래 변천설<sup>3)</sup>을 비교적 찬성하는 편이다.

2) 역주: 『漢清文鑑』과 『同文類解』에서는 쇿구무(솨구멍)라고 하였다.

3) 喬萬尼·斯達里, 「滿洲舊名新釋」 [J], 中央民族學院學報, 1988,(6).

알타이어 계통 언어 가운데 만주어 mangga “硬, 强”과 같은 어원인 단어에는 錫伯語 mangga “貴, 硬, 强”, 赫哲語 mangga “難”, 蒙古語 할하 방언 manggar “歷害, 强大” 등이 있다.

滿洲語 mangga “硬, 强”  
 錫伯語 mangga “貴, 硬, 强”,  
 赫哲語 mangga “難”,  
 蒙古語 manggar “歷害, 强大”

다시 말해서 manju “滿洲”는 알타이어 계통의 mangga “硬, 强”와 ju < \*goro “箭” 두 단어가 결합하여 복합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음 탈락 변화의 결과이다.

먼저 만주어는 膠着語에 속한다. 그 주된 단어 구성 방법은 어미를 연결하는 방법 이외에 합성법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 단어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limbi “接受” + baharakū “不得” = alimbaharakū “不勝”  
 minggan “千” + da “頭目” = mainggada “土司”  
 minggan “千” + soro “棗” = mimsoro “千歲棗”  
 ere “這” + cimari “早上” = ecimari “今早”

이상에서 예를 든 단어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단어의 일부와 두 번째 단어가 결합하여 새 단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man-은 만주어 mangga “難, 硬, 强, 剛强, 優秀, 高貴, 善於”<sup>4)</sup>에 유래하여 ju < \*goro “箭”과

4) 역주: 『漢清文鑑』에는 mangga에 대해서 “노다 貴; 세다 硬; 어렵다 難; 잘 쏘다 善射; 할

결합한 것이다. 결합되는 과정에서 mangga의 두 번째 음절 ga가 탈락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mangga의 두 번째 음절 탈락 이후, 첫 번째 음절의 어말자 음인 ng가 n으로 변했는데, 자음 n과 ng의 교체는 만-퉁구스어족 언어에서 지극히 보편적인 음운변화 현상이다. 여진어와 만주어의 대응 단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여진어 gəxuŋ “顯” - 만주어 gehun “明亮”

여진어 idaxoŋ “狗” - 만주어 idahūn “狗”

여진어 xatan “強” - 만주어 katang “强, 硬”

이들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manju라는 단어의 첫 번째 구성 성분 man-은 mangga “難, 硬”에서 변화되어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믿을 만한 것인 바, 그 구체적인 변천과정을 보면 manju < \*mangju < \*mannga + ju라는 것이다.

manju < \*mangju < \*mannga + ju

## 2. manju의 語義 來源

위의 분석에서 우리는 manju “滿洲”가 복합어이며 mangga “難, 硬, 强, 剛强, 優秀, 高貴, 善於”와 ju < \*goro “箭”이 결합 변화한 것으로 그 의미는 “강한 활, 굳센 활 强悍의箭”이다. 그렇다면 皇太極은 왜 “箭”을 사용하여 자기 민족을 불렀는가? 만주족 및 그 선대의 경제생활을 돌아보는 것은 이

www.kci.go.kr

세다 弓硬; 굳세다 剛强” 등으로 풀이하였다.

문제의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만주족과 그 선대의 肅愼, 挹婁, 女眞은 예로부터 중국 동북지역에서 생활하며 주로 수렵경제에 종사하였다. 이들의 경제생활에 대해 역대의 史書는 모두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山海經·海外書經』에 “동북 해외에 大荒 가운데, 山이 있는데 不咸이라 이름 하였고, 肅愼氏의 나라가 있다. 그 사람들은 모두 활을 쏘는데, 활의 길이가 4척으로 굳세고 강했으며, 화살은 싸리나무로 만드는데, 길이가 1척이며 푸른 돌로 화살촉을 하였다.”

“挹婁는 夫餘의 동북 1천여 리에 있다. 그 활의 길이는 4척이고, 힘이 弩와 같으며, 화살은 싸리나무로 길이가 1척 8촌, 푸른 돌로 화살촉을 하였다. 옛날의 肅愼國이다. 활을 잘 쏘아서 사람을 쏘면 모두 눈을 적중시켰다. 夫餘가 여러 차례 정벌하였으나 그들의 수가 적지만 山의 험지에 거처하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弓矢를 두려워하여 마침내 정복할 수 없었다.”

『後漢書』에는 “挹婁는 옛 肅愼國이다. 山林에 거처하는데, 토질과 기후가 극히 차갑고, 항상 穴居하는데 깊은 것을 귀하게 여겨서 큰 집에는 九梯를 연결하는데 이르렀다. 종족 무리는 적으나 勇力이 많아서 험한 山에 거처하고 활을 잘 쏘아서 쏘았다 하면 사람의 눈을 적중시켰다.” 이 때문에 그들이 여러 차례 중원 왕조에 조공한 것도 활이었다.

『周書』의 기록도 이 같은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순임금 25년 息愼氏가 來朝하였다. 弓矢를 朝貢하였다. 곧 肅愼이다.”<sup>5)</sup>

수렵경제는 여진인의 전통적인 경제방식으로 심지어 일부 여진 부락은 “農事를 짓지 않고 漁獵을 업으로 삼았다.” 그들의 수렵은 고정된 계절이 있어서, 매년 漁獵 시기로는 3월에서 5월까지 春獵이고, 7월에서 10월까지 는 秋獵이었다. 수렵 기간에 그들은 순식간에 출동하는데, 짝을 지어 수렵

5) 楊保隆, 「肅愼挹婁合考」 [M],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301-309.

에 나가는 경우 많으면 30여 명 적게는 10여 명이 나가며 일반적으로 “20여 명이 무리를 지었다.”<sup>6)</sup>

수렵경제의 수요에 의해 여진인은 이미 비교적 발달된 수공업이 있었다. 弓箭을 제작하는 방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명말 여진인의 수공업은 이미 弓箭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데 종사하던 수공업자들이 있었으며 아울러 전문 거주 장소도 있었다. “누르하치 형제가 거주하는 家舍에는 ... 甲匠 16명, 簡匠 50명, 弓匠 30명, 冶金匠 15명인데, 모두 胡人으로 작업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北門 밖에 鐵匠이 거주했는데, 전문적으로 鎧甲을 다루고, 南門 밖에는 弓人, 簡人이 거주하며 弧矢를 만들었다.” “옛날 野人(즉 여진인)은 나무를 굽혀서 鏡子를 만들고, 鹿(角)을 깎아서 화살촉을 만들었는데, 지금 들으니 鏡子와 화살촉은 모두 철을 사용하였다.” 명대 중기 이후로 그들은 이미 “風爐를 설치하고 화살촉을 만들었는데, 모두 담금질을 하였다.”<sup>7)</sup>

만주족은 수렵 겸 목축하는 부락의 공동체로 수렵과 전쟁의 수요로 말미암아 騎射에 능한 것이 만주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되었다. 騎射를 중히 여기는 것이 만주족 대대로의 풍습으로, 심지어 나중에는 만주족 통치자들이 본 민족의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國語騎射” 정책을 취하였다.

이상의 서술로 우리는 弓箭이 만주족 및 그 선대의 경제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지니고 있고, 그들의 활 제작과 쏘는 기술이 뛰어나서 널리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주위 민족들이 그들 민족의 주요 특징으로 인식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대 한인들은 동북의 수렵민족을 통칭하여 “夷”라고 불렀다. 관련분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夷”자는 “大”와 “弓”으로 구성된 상형문자로써, 고대 중국 동북 소수민족의 “큰 활을 메고, 큰 독수리를 쏘는”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6) 滕紹箴, 「滿族發展史初稿」[M],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0, 31.

7) 郭孟秀, 「滿族入關前物質文化特徵」[J], 滿語研究, 2006,(1).

기존의 만주족 종족명칭 어원 연구는 대부분 신화전설, 토템숭배, 역사지리에 주로 의지하여 수렵경제가 만주족의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 기실 현대문명사회에서 사회적 직업 분류로 신분을 동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시사회에서는 경제생활의 분류가 사회집단을 나누고 부르는 중요한 근거였다. 만주족의 활 제작과 쓰는 기술은 세상에 유명해서 皇太極이 “강한 활, 굳센 활 強悍的弓箭”을 뜻하는 manju라는 이름으로 본 민족을 부른 것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 3. 종족명칭과 경제생활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manju “滿洲” 이외에 monggol “蒙古”, orɔŋʅEn “鄂倫春”, daɣur “達斡爾” 등 북방 소수민족의 종족명칭 역시 그들이 종사하는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1) 蒙古

monggol “몽골”이라는 단어는 한문 문헌에서 가장 이른 것으로 “蒙兀”이라 썼으며, 『蒙古秘史』 원문에는 그것을 “忙豁勒”이라고 하였다. 이 단어는 忙- + -豁勒(mang- + -qol)로 구성되었는데, 두 번째 구성 성분 “豁勒”의 독음은 qol 또는 qor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자음 -l과 -r의 교체는 몽고어에서 늘상 보는 어음현상이다. 『蒙古秘史』에서 “豁勒”이라는 단어의 병행 번역은 “弓箭”이다.

필자는 첫 번째 성분 mang-이 우리가 위에서 이미 분석한 만주어 mangga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monggol은 mangga qor의 축약 형식이다. 구체적인 변화과정을 보면 이렇다.

mongol    ∠\*monggor    ∠\*mangor    ∠\*mangga qor

즉 의미는 “強胡”로 강대한 弓箭을 지닌 種族, 部落이다.

### (2) 鄂倫春

orcʃEEn “鄂倫春”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山嶺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馴鹿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胡增益의 연구에 의하면, orcʃEEn은 orc-에 -ʃEEn이 가해진 것이다. 鄂溫克語에서 orcʃn의 어의는 “馴鹿”으로 성분 -ʃEEn은 모종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鄂倫春”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馴鹿을 사용하는 사람”이다.<sup>8)</sup>

### (3) 達斡爾

dayur “達斡爾”라는 단어의 어의와 그 내원에 관해서는 恩和巴圖가 상세한 연구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다구르족이 몽고족과 함께 몽고어족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민족의 기원을 모두 “東胡” 계통 민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dayur “達斡爾”와 mongyol “蒙古” 두 단어에는 내재된 연관이 있다. dayur는 da(漢語 “大”)와 qor “弓箭”으로 구성된 것으로 의미는 “大 弓箭”이다.<sup>9)</sup>

丁石慶도 “20세기 40년대까지도 산악지구의 다구르인은 경제생활에서 수렵이 여전히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10% 정도의 人家는 수렵을 주로 하고 겸해서 다른 부업을 하거나 또는 농사와 수렵을 병행하였다. 布特哈 지구의 다구르인은 수렵을 업으로 하였다. 布特哈이라는 단어는 곧 만주어로 수렵하는 자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sup>10)</sup>

8) 胡增益, 「鄂倫春語研究」[M], 北京, 民族出版社, 2001, 2-4.

9) 恩和巴圖, 「關於“達斡爾”一詞的詞源(蒙古文)」[J], 蒙古語文, 2000,(6).

10) 丁石慶, 「雙語族群語言文化的調適與重構-達斡爾族個案研究」[M],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6, 75.

이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manju라는 단어는 복합어로 man- + -ju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구성 성분 man-은 만주어 mangga “硬, 強”이라는 단어에서 변한 것이며, 두 번째 성분 -ju는 원시알타이어 \*goro “箭”에서 어두자음이 구개음화된 동시에 어말 어음이 연속으로 탈락한 결과이다.

둘째, amnju라는 단어의 의미는 “강한 활, 굳센 활 强悍的弓箭”으로 이 같은 표현법은 만주족 및 그들 선대의 수렵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셋째, manju “滿洲” 이외에 monggol “蒙古”, orɔŋʃEEn “鄂倫春”, daɣur “達斡爾” 등 북방 소수민족의 명칭도 그들이 종사하는 수렵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 Abstract ■

## Textual Research on the Origin of the World Manju

Cang, Shan

The word Manju which is a name of an ethnic group is made by forms of man- and -ju. The first part man- stems from Manchu mangga which means strong and hard, whereas the second part -ju is the collorative result of the continuous dropping off of suffix pronunciation and palatalizing of prefix consonant of the word \*goro in the original language of Atlay. The word manju means "a powerful arrow", the expression of which has a closed relationship with the hunting economy of Manchu & his predecessors.

www.kci.go.kr